2010년 4월 | 제27호

자율관리어업

사단법인 한국수산회
KOREA FISHERIES ASSOCIATION

(137-94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75-1번지 삼호물산빌딩 A동 509호 Tel : 02)589-4603~4 Fax : 02)589-1700 www.korfish.or.kr ■ 발행인 : 회장 박재영 ■ 기사 · 편집 : 자율관리지원팀

금년도 어업현장 분쟁과제 5건 해결 추진

한국수산회, 자율관리어업 자율조정협의회 개최 … 지난해도 5건 분쟁 해결

한국수산회는 지난 3월30일 자율관리어업 자율조정협의회를 개최해 금년도 분쟁과제 5건을 선정,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에 나섰다.

한국수산회는 지난 3월30일 원양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자율조정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자율관리어업 자율조정협의회(위원장 박재영)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어업분쟁 조정을 위한 '10년 신규과제 3건을 비롯, '09년 계속 추진과제 2건 등 5건에 대하여 향후 분쟁해소 방안 등을 협의했다. 한국수산회 자율조정협의회는 지난해의 경우 △서해안 멸치어장을 둘러싼 업종간 분쟁조정 △경북지역 대게자망어업과 근해통발어선간 어장분쟁 △전남 고흥 득량만지역의 연승어업과 연안통발어업간 분쟁 △경북일원의 양조망어업과 연안자망어업간 분쟁 △전북 군산 연도연안 주꾸미 통발어업과 키조개 형망(패류)어업간 분쟁 등 5건에 대하여 조정을 완료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선정된 '10년 분쟁조정 과제 5건은 다음과 같다.

신규과제 3건은 △강원 원덕해역의 연안어업과 근해통발어업간 분쟁 △전북 부안 격포지선 연안어업과 근해선망어업간 분쟁 △득량만 새우조망과 연안복합 및 자망어업간 분쟁 등이며, 계속 진행과제 2건은 △목포지역 낙지잡이 어업인과 신안·무안지역 어업인간 분쟁 △강원 고성군 거진읍내의 연안자망어업과 연승어업인간 분쟁 등이다.

자율관리어업 경인권·충북 광역 워크숍 개최

4월20~21일, 충북 단양에서 … 지난달에는 동해안 워크숍 가져

한국수산회는 4월20~21일 충북 단양에서 경인권 · 충북 광역 워크숍을 가졌다. 이에앞서 지난달에는 동해안지역 지역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가지는 등 자율관리어업 확산을 위한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수산회는 지난 4월20~21일 1박2일 일정으로 충북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자율관리어업 경인권 · 충북 광역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인천시, 경기도, 충청북도 관내 자율관리 공동체 위원장을 비롯 수협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 합동교육 형태로 실시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부의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정책소개와 함께 현행 자율관리어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분임토의가 있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함께 개최된 성공사례 경진대회(지역예선)에서는 인천 · 경기 · 충북지역을 대표하여 3개 공동체가 경합을 벌여 경기 화성시 소재 백미리 자율관리공동체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한국수산회는 이번 경인권·충북 광역 워크숍에 앞서 지난 3월23~24일에는 경북 울진군 한화리조트에서 동해안 광역워크숍을 가졌다. 동해안 광역 워크숍에는 170여명이 참석했으며, 동해 영진 공동체가 성공사례 사례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자율관리어업 전국지도자협의회 사단법인 설립 승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율관리어업 전국지도자협의회(회장 최동희)가 요청한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검토, 지난 3월30일자로 승인했다.

이에따라 자율관리어업 전국지도자협의회는 앞으로 자율관리어업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한 지도사업과 공동체 교육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위탁사무도 맡을 수 있게 된다. 사무실은 옹진군수협 안에 두기로 했다.

제2차 자율관리어업 해외연수

6월3~10일, 북유럽지역 시찰

한국수산회는 오는 6월3일부터 10일까지 6박8일 일정으로 북유럽의 선진지 어업현장을 시찰하는 제2차 자율관리어업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북유럽 해외연수에는 자율관리 우수공동체 지도자 15명과 지자체 관련 공무원 10명, 농림수산식품부 1명, 한국수산회 1명 등 총 27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공동체 지도자는 2009년 등급화 결과 우수공동체 지도자를 우선 선정했다.

그동안 자율관리어업 해외연수는 일본 지역에 국한돼 있었으나, 자원관리형 어업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의 성공사례를 통해 자율관리어업의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처음으로 해외연수지역을 북유럽으로 결정했다. 연수경비는 공동체 지도자의 경우 한국수산회에서 지원하며, 공무원은 자체 부담한다.

한편 자율관리어업 지도자 해외연수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일본(13회), 중국(1회)을 대상으로 총 247명이 다녀왔다.

www.korfish.or.kr

"한국수산회가 수산업 진흥에 앞장서겠습니다."

한국수산회는 수산단체의 연합체 성격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1 어업분쟁조정
어업인간 또는 지역간·업종간 분쟁조정을 통해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 인터넷수산시장 www.fishsale.co.kr
농림수산식품부 지원하에 비영리로 국내산 수산물 전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수산분야 컨설팅
수산분야 경영관리, 생산기술 등 수산전반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도와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수산회
KOREA FISHERIES ASSOCIATION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1 삼호물산 빌딩 A동 5층 TEL : 02) 589-0601 FAX : 02) 589-1700

개정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주요내용

수산업법 '한시어업 허가제' 도입 … 정치성 구획어업 어선 증톤 허용

수산자원관리법 어업자 자발적 협약체결 통해 자원관리 … 각종 위반행위 벌칙도 강화

지난해 4월22일 개정안이 공포된 후 1년이 지난 4월23일부터 수산업법 개정 법률이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그동안 여러 법에 분산돼 있던 수산자원의 보호 및 회복, 조성에 관한 사항을 한데 묶어 새로 제정한 수산자원관리법도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들 법률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4월23일부터 수산업법 개정 법률이 시행에 들어가 그동안 어업인들이 요청해 온 '한시어업 허가제'가 시행됐다.

△**수산업법** =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한 자원이 출현하는 경우 이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시어업 허가제를 도입했다. 그동안은 수온상승 등 해양환경 변화로 특정한 해역에 특정한 자원이 다량 출현하는 경우 연근해어업의 신규허가 금지 등으로 이용(어획)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수산자원의 과학적인 조사·평가를 토대로 다른 어업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해역의 범위, 조업기간·척수 및 어획가능량 등을 정해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시어업허가 제도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허가받은 어선 등을 매입하는 경우 그 날부터 어업할 수 있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 제도를 도입했다. 허가어업에 있어 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매입·임차 또는 상속받은 경우 어선 등을 매입한 자는 그 매입한 날부터 어업을 경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그동안 허가받은 어선 등을 매입한 경우 허가관청에서 새로운 어업허가를 처분 받아야 하는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어업 등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다만,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허가관청에 어선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의 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하고, 90일 이내에는 허가받은 어선 등의 기준(어선검사 등)과 어업자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한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 등도 함께 승계된다.

아울러 정치성 구획어업 및 이동성 구획형망어업의 사용 어선규모를 8톤 미만까지 증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동성 구획형망어선은 어획강도가 커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시·도지사가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관리하고, 동일한 어선에 다른 어업을 허가받은 경우 그 어업을 폐업하는 조건이다.

△**수산자원관리법** =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변화 등을 고려해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수산자원 회복계획, 총허용어획량 설정, 보호수면 지정 등이 필요한 경우 정밀조사·평가계획 등을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또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포획·채취금지, 조업금지구역의 설정, 불법 어획물의 방류명령 및 판매금지, 휴어기 설정, 어구·어선·어법의 제한 등 수산자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조치의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했다.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에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어업자협약제도를 마련하고, 어업자협약의 변경 및 폐지, 어업자협약의 준수 및 승계 등 어업자협약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자원회복을 위해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할당, 배분량 및 부수 어획량의 관리, 판매장소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조성을 위한 수산종묘의 부화·방류 제한, 소하성 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 방류,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와 사용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채취금지 기간 등을 위반하거나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한 자 등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해 벌칙을 강화했다.

보성 벌교에 어촌체험마을 조성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일원에 조성될 어촌체험마을 조감도.

보성군이 벌교 꼬막 주산지에 숙박과 체류가 가능한 어촌 체험 마을을 조성한다.

보성군은 올 11월 준공을 목표로 30억여원을 들여 벌교읍 장양리 일대 2만 1,958㎡ 부지에 총 면적 730㎡의 교육장 1동과 숙박 시설 5동을 짓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자만 산책과 짱뚱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안 도로와 해안 데크를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그동안 운영한 선소 어촌 체험장은 1박이 불가능했다며 이번 어촌 체험 마을 조성으로 갯벌에서 꼬막과 짱둥어를 채취하고, 근처 태백산맥 문학관 등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본격 추진

수협, 총사업비 52억원 확정

수협이 '2010년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수협은 최근 확정된 농림수산식품부의 '2010년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국고보조금 28억원, 지방자치단체보조금 12억원, 어업인 부담금 12억원 등 총 52억원 규모로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을 시작키로 했다.

이 지침에는 생분해성 어구를 구매하는 어업인에게 기존 화학섬유제품 대비 차액뿐만 아니라 이들 가격의 20%를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수협은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의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어구 생산업체와 공급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으로부터 구매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수협은 앞으로 사업 대상 어업인의 구매신청에 따라 어구를 공급하고 대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등 시범 사업의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52억원 규모의 신규 선수물자 취급 수요가 창출됨에 따라 회원조합의 구매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생분해성 어구란, 미생물에 의해 자연분해되는 소재로 만든 어구로 분해기간이 2년 정도 걸려 300년 이상 걸리는 기존의 나일론이나 폴리에틸렌보다 해양생태계 보존효과가 뛰어나다.

넙치 연쇄구균증 예방 백신 개발

수산과학원, 제약업체에 기술이전해 상용화 추진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연구소는 대표적인 양식어류 질병 연쇄구균증의 원인균 두 종류(베타-용혈성 연쇄구균과 감마-용혈성 연쇄구균)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혼합백신을 개발, 실용화를 위해 기술이전한다.

이번에 개발된 혼합백신은 연쇄구균증의 원인균인 베타-용혈성의 스트렙토코커스 이니에(Streptococcus iniae)와 감마-용혈성의 스트렙토코커스 파라우베러스(Streptococcus parauberis) 균주를 불활성화시켜 일정 비율로 혼합한 주사백신이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백신은 스트렙토코커스 이니에의 단독병원체에 대한 예방효과만을 갖는다.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연구소는 이 혼합백신의 기술이전을 통해 수산용의약품 업체에서 조기에 상용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양식 어류 질병 가운데 하나인 연쇄구균증은 주로 양식장 물이나 사료 등을 통해 감염되며 비브리오패혈증, 에드워드병 등과 함께 대표적인 여름철 세균성 어류 질병이다. 특히 넙치의 다양한 양식 연령에서 연중 발생하고 항생제 내성도 높게 나타나 고수온기에는 폐사율이 30%를 넘는다.

김 우량종자 1,500g 38명에 분양

전라남도수산기술사업소 해남지소

전라남도수산기술사업소 해남지소(소장 김동수)는 해남지역 김 양식장에서 지속적인 엽체선발을 통해 확보된 김 우량종자를 관내 사상체 배양어업인 38명에게 원하는 품종과 양으로 총 1,500g(모무늬돌김 1,000g, 방사무늬김 500g)을 분양했다고 밝혔다.

올해 김 우량종자(유리사상체) 분양은 지난 3월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신청을 받아 22일부터 4월5일까지 15일간 완료했다. 이번 분양물량은 해남지소에서 수년간 인근 김 양식장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종의 엽체를 선발해 배양 증식해 온 결과 어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온 검증된 우량품종이다.

이번에 분양한 물량은 해남지역 전체 유리사상체 필요량의 50%에 해당하는 김발 5만책분을 채묘할 수 있으며, 마른 김 600만속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해남지소측은 밝혔다.

특별기고

자율관리어업으로 변모하는 어업인의 의식

정 선 홍
강원도 동해수산사무소

미래의 우리 바다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안으로는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적 조업으로 수산 자원은 고갈되고, 밖으로는 국가간 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수산업에 대한 압박은 날로 심화될 것이다. 여기에 어업인구의 고령화는 수산업의 심각한 고민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어업인구가 점차 고령화 단계로 접어든 것은 관계당국 뿐 아니라 실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들도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고민거리이다.

수산업은 농업과 달리 경작의 의미보다는 포획의 의미가 광범위하다. 또한 수산업은 조업구역 범위의 모호성으로 인해 무주적 자원의 선점은 곧바로 경쟁조업과 남획, 수산물 가격의 하락, 어업인간 분쟁 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하여 마치 뒤엉킨 실타래 모양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린다.

더불어 수산물의 소비는 점차 둔화되어 간다. 비린내 나는 생선을 만지작거리는 일은 젊은 주부들에게는 꽤나 곤욕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값싼 수입 수산물의 범람도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회복하는 방안은 무었일까?

정부는 우리 수산업의 회생을 위해 다양한 수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하면서 가장 역점을 기울이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자율관리어업' 이다.

어업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정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자율적으로 어장을 가꾸고 보호하자는 것이 자율관리어업의 근본 취지이다. 이를위해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현행 법령보다 강화된 자율관리 규약을 제정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해 어가 소득증대를 꾀하자는 '자율관리어업' 이 시작된 지 10년을 맞고 있다.

'자율' 이란게 말처럼 쉬운 일일까. 혹자는 "강하게 법으로 만들어 단속하면 될 걸,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드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스스로 지키라고 던져두니, 아마 더욱 지키기 어려운 무엇이 머릿속에 물음표로 생겨 난 건 아닐까?

자율관리어업이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수산의 모든 문제를 말끔히 해소하기 위한 마법의 지팡이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희망의 끈을 잡았다면 그건 바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보다 성숙한 어업인을 육성하는 '어업인을 변화시키는 힘' 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자율관리어업을 통한 10년, 어촌지도에 몸담고 있는 우리는 어촌현장에서 한층 자원관리에 능숙한 어업인을 만날 수 있었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운동이 아닐까. 자율관리어업을 통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어업인의 의식이 바뀌고 있음을 현장에서 체감하기 때문이다. 분명 10년 전과는 어업인의 의식에 많은 변화가 있다.

그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은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자율관리어업은 지금 우리 어촌사회에서 정신적인 지주대 역할을 하고 있다. 어업인의 의식 변화는 비단 그 사업이 아닌 수산 전반의 걸친 다양한 사업에 영향을 미치며, 어촌사회를 보다 활기차고 넉넉하게 만들어가는 원동력이다.

아마도 우리 수산업은 더 이상 젊은 세대가 없는 수산업의 미래를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닌,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빼곡히 자율관리 활동일지를 적어 내려가는 어업인의 손길에서 이미 변화된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확신한다.

안산 대부도 어촌종합개발사업 본격화

경기도, 6개 마을에 50억 투입 … 2012년까지 추진

경기도가 오는 2012년까지 안산시 대부도에 총사업비 50억원을 들여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본격화한다.

사업대상 지역은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계획이 승인된 안산시 대부권역의 종현동과 상동, 행낭곡, 흥성리, 선감동, 탄도 등 6개 마을이다.

이에 따라 어업기반시설 5개소, 어촌관광시설 9개소, 어업복지시설 5개소 등 3개 부문 19개소를 개발하게 되며, 시설이 낙후된 지역의 어업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한 어촌관광 개발사업을 중점 지원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어촌의 발전 잠재력과 관광여건 등을 고려해 다른 어촌마을을 선도할 모델로 종현동을 선정,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곳을 '갯벌이 살아 숨 쉬는 해양레저마을' 이란 테마에 맞춰 해양레포츠와 갯벌 체험 등이 가능한 어촌관광 기반시설로 조성해 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나머지 5개 어촌계에는 지역특성에 따라 어업기반 시설과 어업인 복지시설 등 10여개의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21억원, 내년에는 19억원, 2012년에는 10억원 등 총 50억원이 이번 사업에 투입된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여수수산기술사업소, 올해 100여 양식어가에 16억원 지원

여수수산기술사업소가 지난 4월6일 실시한 배합사료 지원사업 설명회 모습.

전남수산기술사업소 여수지소(소장 임여호)에서는 생사료 사용으로 문제되는 양식어장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의 2010년도 사업자 102명을 선정하여 4월6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번에 선정된 어류양식어가는 해상가두리 1ha와 육상수조식 양식어장 35,000㎡에 배합사료(EP)를 사용한 금액의 30%를 지원하며 1어가 한도내에서 6천만원을 지급하고, 올해 총 사업비는 16억원에 달한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은 2004년 첫 시행하여 2009년까지 6년 동안 1,200어가에 106억원이 지원된 바 있으며, 양식어가의 경영비의 40~50%를 차지하는 사료비의 부담을 크게 해소해 주고 있다.

여수수산기술사업소 임여호 소장은 "배합사료(EP) 지원사업 이외에도 우럭(조피볼락), 돔류 등 여수 해역의 주요 어류양식 대상의 기업화 및 규모화 추진과 친환경수산물 지정을 통해 어류양식 어업인의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만 가리맛조개 일본 수출 첫 개시

여수수산기술사업소, 지역특화품종으로 육성

순천만에서 생산된 가리맛조개가 일본으로 첫 수출돼 지역 소득원 창출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전라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여수지소(소장 임여호)에서는 우리나라 유일의 염습지인 순천만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수산물인 가리맛조개의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전량 일본으로 수출 계약이 체결되어 첫 출하가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지역특화 품목으로 지정, 적극 육성하기로 하였다.

가리맛조개는 진흙갯벌 1m 저층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이매패로서, 껍질은 얇고 긴 타원형으로 주 산란기는 10~12월이며, 껍질을 깐 조갯살은 '맛살' 이라고 불리운다.

맛이 너무 좋아 아예 이름에도 '맛' 이 붙은 가리맛조개는 「물탕의 감초」라 할만큼 빠져서는 안되며, 이름 그대로 아무 양념을 하지 않아도 깊고 진한 맛을 낸다. 연중 언제 먹어도 좋지만 산란전 살이 통통하게 오른 5~6월이 제철로써 숯불에 구워 먹거나 샤브샤브로 살짝 데쳐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다.

가리맛조개도 다른 조개류와 같이 타우린 많아 혈액 중 콜레스테롤 함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시켜 주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직장인이나 수험생들의 피로회복에 탁월하다.

관내 가리맛조개는 양질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는 순천시 노월, 마산, 용두어촌계에서 주로 생산되며, 용두어촌계에서는 3월 31일 3톤을 첫 수확하여 일본으로 본격 수출되었고 금년 5월중순까지 생산되는 70톤(약 6억원) 전량을 수출할 계획이다. 용두어촌계는 2009년도에도 65톤 가량을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가격도 작년에는 kg당 6500원선에 거래되었으나 올해는 현재 kg당 8,000원이상 높은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어촌계의 신소득원으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장흥 미역 전국 첫 친환경수산물 인증

전남 장흥군은 장흥산 '미역'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그동안 친환경 미역 생산을 위해 지난 30여년 동안 공유수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미역 양식어장의 불법시설에 대해 어장 재배치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와함께 친환경 수산물 생산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미역 양식어민들을 설득해 불법시설 어장 및 항로와 중복된 어장에 대한 정비를 통해 기존 어업면허 368ha를 재배치하고 신규어장 개발 178ha를 신청해 전남도의 승인을 받았다.

수산사무소 탐방 / 충청남도수산관리소 서산사무소

나노버블을 이용한 초고밀도 새우양식 실용화 사업 추진

자율관리공동체 내실화 주력 … 수산동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임 매 순 소장

충청남도수산관리소 서산사무소(소장 임매순)는 지난 1981년 수산청 국립수산진흥원 서산어촌지도소로 출발, 정부조직 개편과정을 거쳐 지난 2009년 5월부터 충청남도 소속기관으로 재출범했다.

서산사무소는 서해안의 대표적 양식어종인 새우 축제식 양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폐쇄식 새우양식시스템 개발' 사업에 집중했다.

이 사업은 외래품종인 흰다리새우를 현장에 적용하여 흰반점바이러스에 대한 내병성을 규명하고 인위적인 수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무환수 양식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로인해 침체된 축제식 양식에 흰다리새우가 새로운 경제성 있는 품종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 금년에는 서해수산연구소(서해특성화연구센터)의 친환경 새우양식법을 기초로 '나노버블을 이용한 초고밀도 새우양식 실용화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축제식양식으로 연 1회만 생산하는 방법에서 탈피, 기존의 육상수조양식장에서 새우양식에 필요한 나노버블기, 산소발생기 등을 사용해 단위면적당 연 2회의 단기생산 및 80~90배 높은 생산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같은 초고밀도 무병새우 그린양식 방법을 통해 서산사무소는 새우의 생산량 증대는 물론 생산시기를 조절함으로써 가격안정의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600㎡를 기준하여 축제식의 경우 정상 수확 시 180㎏ 정도를 생산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8톤/회(연 2~2.5회)의 생산량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서산사무소 측은 밝혔다.

이와함께 서산사무소는 '자율관리공동체 확산교육' 을 수시로 실시, 신규 공동체 발굴에 주력하는 한편 공동체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현장지도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 '양식단지별 수온자동측정' 으로 관측된 자료를 분석해 월간수온정보를 발간, 어업인들에게 제공해 과학영어를 유도하는 등 양식어장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밖에 2009년 6월에는 '수산동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으로 지정돼 수산생물의 확산 방지에 신속히 대처해 어업인들의 높은 호응을 얻는 등 전문검사기관으로의 위상도 강화해 가고 있다.

❶ 초고밀도 새우양식장에서 어업인과 양성관리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모습.

❷ 서산사무소에서 자율관리어업 확산을 위해 관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

❸ 임매순 소장(아래줄 중간)과 서산사무소 직원들의 기념촬영 모습.

2010년 제1차 자율관리어업 지도자 일본연수

"일본의 정치망 및 돛단배체험, 우리 어촌마을에도 접목시켰으면…"

정치망에서 어획된 고기를 퍼내는 모습. 연수단은 가라츠에서 어선 3척에 나눠 타고 정치망 체험을 했다.

우사시 나가우라 어망 제작회사를 방문, 일본의 어망 제조현황을 살펴봤다.

금년도 제1차 자율관리어업 지도자 해외연수가 지난 4월5일부터 9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우수공동체 위원장 총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오이타, 구마모토, 나가사키)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공동체 지도자는 2009년 등급평가 결과, 우수공동체중 복합어업 위주로 선발됐다.

이번 연수단은 먼저 오이타에서 현청 및 공설 도매시장, 어망공장 등을 둘러봤다. 현청 수산진흥과에서는 일본의 자원회복계획과 자원관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어업인들의 관심사에 대해 질의 응답했다. 오이타현 공설지방도매시장에서는 일본의 수산물 유통구조를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와함께 구마코토현 아시키타마치 어업조합에서 조합장과 수산업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이곳에서 돛단배를 타고 저인망 체험을 하기도 했다. 나가사키현에서는 종합수산시험장을 방문, 일본의 복어양식 현황을 파악하고, 인근 정치망어장에서 어선 3척을 빌려, 정치망체험을 갖기도 했다.

이번 연수에서 공동체 위원장들은 정치망 체험어장 및 돛단배 체험을 우리 자율관리 공동체에 접목시켜 관광 자원화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본의 경우 어촌마을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 접안시설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다는게 연수 참석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오이타현 공설지방 도매시장 방문 후 연수단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나가사키 수산시험장내 가공시험실을 견학하고 있는 모습. 수산시험장에서는 복어양식 및 가공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